統辭的 派生에 대하여

任　洪　彬

1. 서　론

전통적으로 '派生'은 조어법상의 개념으로, 어근이나 語基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연결되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형태론적인 절차를 말한다.[1] 여기서, 語基를 B, 접미사를 S, 접두사를 P, 단어를 W라고 할 때, 파생의 구조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어근은 어기의 하나로 취급하기로 한다.

(1) a. $[[B]_{W/MS}]_{W'}$
　　b. $[P[B]_{W/M}]_{W'}$
　　c. $[P[[B]_{W/MS}]_{W'}]_{W''}$
　　d. $[[P[B]_{W/M}]_{W'S}]_{W''}$

(1a, b)는 단어나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W/M)에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는 경우를 보인 것이며, (1c, d)는 단어나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W/M)에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 새로운 단어(W′)가 된 뒤에 다시 다른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 또 다른 단어(W″)를 이루게 되는 절차를 보인 것이다. (1a-d)를 파생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때, 파생의 원리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2) a. 파생은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진 어기에 대하여 작용한다.
　　b. 파생의 결과는 단어나 또 다른 어기의 자격을 가진 형식을 생성한다.
　　c. 파생에 의하여 초래되는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변화는 어기의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성격에 대하여 작용하게 된다.

[1] 이는 문제를 매우 단순화한 것이다. '파생'과 관련되는 형태론적 절차에 접두법이나 접미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는 삽요법도 포함되고 '내적 변화'나 '영변화'도 포함된다. Bloch and Trager(1942)에서 지적된 다섯 가지의 형태론적 절차 가운데 '중첩법'이나 '보충법'이 파생과 관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달이, 일일이, 집집이, 사람사람' 등이 복수를 만드는 중첩법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이나, 파생의 예로는 보기 어렵다.

(2a, b)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2c)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語基는 부사인데 그에 접미된 요소가 바로 그 부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문장의 다른 성분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파생이 되지 못한다.

국어의 '접미사' 가운데는, (2)와 같은, 파생의 전형적인 정의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는 많은 예들이 있는 반면, 그 성격이 정확하게 (2)와는 일치하지 않는 예들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예들이 그 동안 주목되지 않은 바는 아니나,[2] 그 전반적인 성격이 명확하게 구명된 일은 없는 듯이 여겨진다. 본고는 이러한 예들을 중심으로 '통사적 파생'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적 파생은 국어에 매우 광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국어의 유형적 특징과도 관련되므로, 문법 현상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통사적 파생의 성격

원리적으로, 위의 (2)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파생을 '형태적 파생'이라고 할 때, '통사적 파생'은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든 (2)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파생을 뜻하게 된다.[3] (2)의 각 항을 부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a. 통사적 파생은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진 어기에 대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b. 통사적 파생의 결과는 단어나 또 다른 어기의 자격을 가진 형식을 생성시키지 않는다.
c. 통사적 파생에 의하여 초래되는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변화는 어기의 문법적이거나 의미론적인 특성에 대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형태적 파생'이 (2)의 성격 모두를 가져야 하는 데 반하여, '통사적 파생'은 (3a~c)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더라도 성립하게 된다. (2)의 어느 하나를 어기더라도, 그것은 파생의 전형적인 부류에는 속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중 통사적 파생을 가려내는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3a)이다. (3a)가 뜻하는 '형태소나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가 아닌 것'을 '통사적 구성'으로 바꾸어 보기로 한다.

---

[2] 이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창섭(1984)이다. 접미사 '-답-'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하나는 명사구 뒤에 연결되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단어적인 파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는 파생 접미사가 연결되는 구조에는 형태적 파생과 통사적 파생 외에는 달리 없음을 전제로 한다.

(4) 통사적 파생의 성격

어휘적 의미를 온전히 가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통사적 구성 뒤에, 통사적인 연결 장치의 도움 없이, 연결되는 것을 '통사적 파생'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3)에는 세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기술해 보기로 한다.

(5) a. 문제의 요소는 어휘적인 의미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문법적인 요소이다.

b. 문제의 요소는 단어나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어기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 뒤에 붙는다.

c. 문제의 요소와 선행 통사적 구성 사이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은 통사적인 연결 장치가 없어야 한다.

(5)의 각 항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접미사 논의와 통사적 파생

기왕의 접미사 논의를 중심으로, (6b)에 보인 예와 같이 형태적 파생으로 보기 어려운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예들도 함께 보이기로 한다.

(6) a. 님, 네, 마님, 놈, 년, 꾼, 쯤, 깨$_1$(힘-), 감(옷-), 거리(일-), 결(물-), 자락(옷-), 장이/쟁이, 질, 씨(氏), 가(哥), 양(孃), 군(君), 공(公), 등

b. 끼리, 들, 씩, 째, 깨$_2$(보름-), 뿐, -답-, -스럽-, -싶-, -하-, 등

c. -앙이, -이, -애, -보, -브-, -비-, -둥이, -사귀, 등

(6) 가운데는 접미사로 다루어진 예들도 있고, 또 논의에 따라서는 접미사의 목록에서는 제외된 예들도 있다.[4] 가령, 최현배(1959)에 의하면, (6a)

[4]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6)은 접미사 또는 접미사적인 예의 총목록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 유형의 총목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접미사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다. 최현배(1937, 1959), 이숭녕(1961, 1981), 이기문(1961, 1972), 안병희(1963), 김계곤(1969a, b 및 1976), 고영근(1974), 허 웅(1975), 송철의(1977, 1983), 민현식(1983), 김창섭(1984), 하치근(1988) 등이 주목된다. 고영근(1974)는 고영근(1972a, b, 1973a, b)를 수록한 것이나, 여기서는 주로 고영근(1974)를 참조하기로 한다. '짜리(백 원-), 어치(백 원-)' 등은 비록 [[백 원] 짜리], [[백 원] 어치] 등과 같이 통사적 구성 뒤에 쓰일 수 있어 (6b)와도 흡사한 성격을 가지나, *[[어제 내가 준 백 원] 어치]와 같은 구성을 이룰 수 없으므로, (6b)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여기서는 이들이 수량 표현 뒤에 쓰임을 중시하여, 수 단위 의존 명사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의 '꾼, 질' 등은 "발가지" 즉 접미사에 속하는 것이나, '님, 씨, 놈, 년, 선, 수재(秀才), 도령, 아기씨' 등은 "안옹근이름씨" 즉 의존 명사에 속하는 것이며, 유창돈(1971)에서는 의존 명사 외에 "관형사"[5]에 연결될 수 없는 '개(아무-), 초리(눈-), 섭(눈-), 부텨(눈-), 솔('밸'['밸'이 틀리다]의 뒤에 붙었던 형식), 복(비-), 겻/곁, 맡, 실(구의-), 매(팔-), 녁/녘, 지(팔-, 가락-), 마/머(터럭-), 나잘(흔-)' 등을 '접미 명사'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6]

고영근(1974)에 의하면, (6a)의 '놈, 년'은 '네놈, 김가놈' 등과 같은 예에서는 "접사적인 성격이 다소 농후하지마는 [...] 단순한 자립 형식"이며, '감, 거리, 자락, 결' 등은 접미사이다. Martin(1954)에 의하면, (6a)의 '네, 질'이나 (6b)의 '들'은 다같이 '후명사(post-noun)이며, Martin et al.(1968)에 의하면, '님, 씨, 양, 마님, 생원, 서방' 등도 '후명사(post-noun)'이나, 이 후자들은 고영근(1974)에서는 접미사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a)의 '님'이나 (6b)의 '끼리, 째' 등은 김계곤(1969a)에 의하면 의존 명사이다. 「조선어 문법 1」(1960)에 의하면 '군(씨름-), 머리(심술-), 쟁이(심술-)' 등은 "단어 조성의 접미사"로, 선어말 어미나 피동, 사동의 접미사 및 전성 어미 등과 같은 "형태 조성의 접미사"와 구별된다. 이들은 다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토"와 구별되었는데, 「조선문화어문법규범」(1976)에서는 "형태조성의 접미사"와 "토"를 모두 "토"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이 (6)의 어떤 예를 접미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요소가 나타내 보이는 쓰임 모두를 접미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7]

접미사에 관한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의 하나는 (6c) 및 (6b)의 '-스럽-' 등과 같은 예들에 대해서는 그 접미사적인 성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깨'는 '힘깨나 쓴다'라고 할 때의 '깨$_1$'과 '보름깨, 그믐깨' 할 때의 '깨$_2$'를 구별하기로 한다. 통사적 특징이 다르다.

[5] 이는 '관형사형'의 잘못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개'의 '개'에 대해서는 '아무분'의 '분'과 달리 '*좋은 개, *젊은 개'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6] 고영근(1974)에 나타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고영근(1974)에서는 유창돈(1971)의 "접미 명사"를 '접미사'의 일종으로 파악한 듯한 느낌을 주며, Martin(1954)와 Martin et al.(1968)의 '후명사(post noun)'도 '접미사'로 해석한 듯한 느낌을 준다.

[7] 가령 고영근(1974)에서 '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체언에 직결되거나 [예, 사람들] 다른 접미사에 통합되는 '들'은 접미사로, 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명사나 부사 또는 조사 또는 어미 뒤에 붙어 주어가 복수임을 예상해 주는 '들'은 조사로 보고 있다.

거의 의문이 제기되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유창돈(1971)에서는 "파생 명사[複形 名詞]"는 곧 '살림, 걸음〔步〕' 등과 같은 "전성 명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을 정도이다.[8] 그만큼 (6c)는 접미사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 명확히 분석된 일도 있으나, (6a)와 (6b) 중에는 분명히 명사적 성격을 가지는 예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다. 하나는 (6c)를 형태적 파생의 전형이라고 할 때, 형태적 파생의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c)가 (6a, b)의 지배적인 부류에 대하여 어떠한 변별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의 토대 위에서 (6a, b)가 가지는 성격은 어떠한 것이며, (6a)와 (6b) 사이에는 또 어떠한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궁극적으로는 (6c)가 가지는 형태적 또는 어휘적 특이성과 관련을 맺고 있음이 분명하다.

접미사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그 동안 주목되어 온 것은, 접미사적인 구성이라고 불려 온 결합 형식 속에 다른 형식이 개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분리성(分離性), 접미사의 가능 후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요소가 관형사형에 의하여 수식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결합상의 제약, 또는 문제의 형식이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가 어휘적인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어휘·의미론적 성격, 또는 분포가 제약되는가 어떤가 하는 분포상의 제약 조건과 같은 것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접미사를 변별해 내는 데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접미사 구성에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가,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도상의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많다. (6a)나 (6b)의 어떤 요소들이 의존 명사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은 오직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기준이 찾아지기 어렵다. 분포의 측면에서도 '다오, 달라'와 같은 '불구 동사' 또는 '불완전 동사'[이는 학교 문법 용어이다]와 (6a, b)의 어떤 요소가 보이는 특성이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다. 분류사도 특정한 부류의 구성 뒤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분포상의 제약이라는 조건도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불의(不意)의 사고'나 '불굴(不屈)의 의지'와 같은 예에서의 '불의의'나 '불굴의'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8] 여기서 "전성 명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적 성격의 변화, 즉 통사적 범주의 변화를 초래하는 파생을 가리킨다. (6c)와, (6b)의 일부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만 쓰일 뿐이다.[9] 접미사 앞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가진 형식이 올 수 없다는 결합상의 제약도, 분명 유효한 조건의 하나이기는 하나, 반드시 접미사 형태의 앞에만 관형사형이 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명(학생 한 -), 톤(석탄 3 -), 개(사과 한 -), 대(차 한 -), 접(오이 한 -)' 등과 같은 분류사 또는 '수 단위 의존 명사' 앞에도 용언의 관형사형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은 특히 용언의 관형사형만을 그 변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왔다고 여겨진다. 유창돈(1971)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고영근(1974)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관형사형뿐만 아니라, 관형사도 고려되어야 하고, '명사+명사'의 구성에 있어서 선행 명사가 아무런 표지 없이도 관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사과 한 개'의 '개' 앞에는 '*누가 준 개, *내가 먹을 개'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를 가지는 형식은 올 수 없으나, 이미 '한 개'의 '한'이 관형사[또는 관형적인 기능으로만 쓰이는 형식]이므로, 이 구성 자체는 통사적인 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놈'에서의 '네'도 '너'와는 다른 형식이고, 이미 속격을 갖춘 형식이므로, 그 구성 또한 통사적인 것이다. '이 서방, 김 생원'의 '서방'이나 '생원'이 접미사일 수 없는 것은 '이+서방, 김+생원' 사이에 '*김의 생원'과 같이 비록 다른 조사가 개입할 수 없어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고영근(1974)에서는 관형사형이 올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김 서방'에서 '김'은 명사 자체로서 관형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서방이 왔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 서방이 왔다'와 같은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0] 따라서, 이 조건은 좀더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분리성' 기준은 형태적 파생을 변별해 내는 매우 유효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어근이 분리될 수 있는 현상이 있으므로[11], 어근 분리 현상과 접미사적인 존재가 가지는 비분리성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9] 이 경우는 '불의(不意)의, 불굴(不屈)의'의 '의'를 접미사적인 존재로 설정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 예의 '의'는 다른 통사적 구성에 나타나는 '의'와 그 형태·통사 또는 의미적 기능의 동질성이 인정될 수 있는 일이므로, 접미사일 수 없다. 이는 굳어진 쓰임의 일종으로 보인다. '불굴의 의지'는 사석에서 고영근 교수가 지적해 준 예임을 밝혀 고마움을 표한다.

[10] '김 과장, 정 사장'과 같은 예의 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졸고(1987b)를 참고하기 바란다.

[11]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졸고(1979)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부분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홍재성(1985)이 참조된다. 그러나, 국어에 어근 분리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통사적 구성에 의한 검증

분리성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중시하기로 한다.

(7) 어휘는 孤島(island)이다. [Kato(1985) 참조]

(7)은 어휘 내부의 어떠한 요소도 통사적 구성의 다른 요소와 관련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통사적 절차도 어휘적인 단위의 '내적인 요소를 참조할 수 없음을 말한다. 파생어라는 것이 어휘적인 단위의 형성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국어의 파생에 대해서도 (7)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 통사적 변형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리는 (7)을,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7)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정하고, 이를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8)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
파생어를 이루는 접미사적인 요소는 독자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

(8)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접미사에 대한 논의가 왜 관형사형이 앞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특히 주목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접미사 앞에 관형사형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통사적 구성이며, (8)의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을 어긴다. 그것은 관계 구성이나 관형 구성에 접미사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6)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이 통사적 구성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9) a. *가지에 붙은 앙이 ['가장이 ←가지+앙이'에서 두 요소를 분리한 것]
b. *가지는 앙이가 많다.
c. *앙이가 많은 것은 가지이다.
d. *그 앙이가 이것이다.
e. *무슨 앙이가 있느냐?
f. *[[땅에 떨어진 가지] 앙이]

(10) a. ?땜에 열중하는 장이 ['땜장이'의 '땜'과 '장이'를 분리한 것]
b. ?땜은 장이가 한다.
c. ?땜을 하는 것은 장이이다.

d. ??그런 장이는 몇 사람 안 된다.
e. 물음 : 무슨 장이가 왔느냐? 대답 : 땜장이가 왔다.
f. *[우리 집에 필요한 땜]장이.

(11) a. ?*동물이 모인 끼리 ['동물 끼리'를 분리한 것]
b. ?*동물은 끼리로 논다.
c. 끼리로 노는 것은 동물이다.
d. 그것들 끼리 논다.
e. 무엇 끼리 노느냐?
f.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끼리]

(9)는 (6c)에 속하는 '-앙이'의 형태적 파생어 '가장이['가지+앙이']에 몇 가지 통사적 절차를 적용해 본 것이다. '-앙이'는 (9a)와 같은 관계 구성의 표제도 될 수 없고, (9b)와 같은 주제 구성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9c)와 같은 분열문 구성도 성립시키지 않으며, (9d)와 같은 대명사 구성도 성립시키지 않고, (9e)와 같은 의문을 허용하지도 않으며, (9f)와 같은 분석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분리성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통사적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6c)에 보인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선행 어기의 통사적인 범주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타의 많은 접미사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특징은 (6c)의 예들이 전형적인 형태적 파생에 속함을 말해 준다. 접미사 논의에서 이들의 접미사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제기된 일이 없는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10)은 (6a)에 속하는 '장이'의 한 가지 예인 '땜장이'에 (9)와 같은 통사적 절차를 적용하여 본 것이다. (10a~d)가 다소 이상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있어서 (9a~d)가 가지는 非文法性에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0e)의 성립은 완벽한 것이므로, '장이/쟁이'라는 것이 비록 모든 통사적 구성에서 완벽하게 통사적 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어떤 구성에서는 독자적인 통사적 참여자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적어도 어휘적인 차원에서는 '땜장이' 사이에 다른 어떠한 요소도 개입될 수 없으나, 그 구성은 통사적임을 의미한다. 분리성 제약은 다른 이유로 설명되어져야 할 예이다. 가령, '소금쟁이'[동물 이름]에 대해서는 전혀 (10)과 같은 절차를 상정해 볼 수 없으나, 이는 '장이/쟁이'의 어휘·의미론적인 특수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그 구성 자체의 특이성에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땜장이'는 아마도 합성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10f)와 같이 두 단위가 따로 다른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6a)의 다른 예들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일이 예를 드는 것은 피하기로 한다.

(11)은 (6b)에 속하는 '끼리'의 한 가지 예인 '동물 끼리'에 (9)나 (10)과 같은 통사적 절차를 적용하여 본 것이다. (11a)가 (10a)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들은 거의 그 성립에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11a)가 (10a)보다 더 나쁜 것은 (6b)의 예들이 통사적 구성에 독자적 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d, e)가 거의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 것은, 접미사 앞에 이미 필요한 형식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11)의, (10)과 다른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10f)와 달리 (11f)는 그 성립에 거의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끼리'에서 '끼리'는 '동물'뒤에만 연결되어 '동물끼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끼리'가 '우리 집에 있는 동물'이라는 통사적인 구성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10)은 (6a)의 예들이 선행 형식과 함께 합성어[그 내적인 구조가 통사적일 따름이다]를 이룸을 보이는 데 대하여, (11)은 (6b)의 예들이 선행 형식 전체와 통사적인 구성을 이룰 수 있음을 보인다.

(11f)가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8)의 '접미사의 어휘 고도 제약'을 어기는 것은 물론, (5b)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우리가 (3)이나 (4)에서 상정한 '통사적 파생'이라는 부류에 속하게 된다.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조건의 하나는 (5a)와 (5c)이다. (5a)는 '통사적 파생'에는 '어휘적 의미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문법적 요소'가 와야 한다는 것이며, (5c)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5a)의 조건을 단순히 어휘론적인 문제로만 받아들여 (6a)와 (6b) 중에 어느 것이 더 문법적인 요소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는 어느 것이 더 어휘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종래와 마찬가지의 주관적인 논의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6a)와 (6b)를 나누는 가장 강력한 문법적인 장치인 (9)~(11)의 (f)와 같은 구성에 대한 변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6a)와 (6b)의 구별은 다소 용이하다. 뒤에 있는 요소가 단지 선행 요소와만 관련되면 (6a)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며, 뒤에 있는 요소가 선행 요소를 포함하는 선행 통사적 구성 전체에 연결되는 것이면, 그것은 (6b)에 속하는 부류이다. 다만, (6a)의 예들이 독립적인 어휘적 단위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 논의에서 제외된다. (6a)가 선행 형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이룰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합성어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한다.

(6b)의 부류와, (6a)가 아닌 다른 부속 형식들과의 사이에는 (5c)와 같은 기준이 그 변별의 유효한 조건이 된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12) a. 나는 [[철수가 오는] 것]을 보았다.
b. 나는 [[철수가 오기] 전]에 준비를 끝냈다.
c. [[돈이 없으면 돈을 꾸게] 마련이]다.
d. [[이런 날이면, 물에 가기] 십상]이다.
e. 그가 나를 찾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12a)는 의존 명사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것' 앞에 '-ㄴ'과 같은 문법적인 장치가 있어 선행 구성과 '것'과의 관계는 어휘적인 구성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임을 말해 준다. (6b)와의 구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12b)는 '전' 앞에 '-기' 구성이 온 예이다. '전'은 '-기' 구성을 그 보어로 요구하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 구성과 '전' 사이에는 '이 전, 그 전, 요 전, 조 전', 등과 같은 예들이 성립하므로,[12] '전'은 관형 성분을 앞에 가지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12b)에서 '-기' 구성과 '전' 사이에 외현적인 통사적 연결 장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관형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같은 이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12c)의 '마련이다' 앞에 오는 '-게' 구성의 성격은 미묘하다. '-기'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 구성이 '마련이다'라는 서술어 전체에 대하여 걸린다면, 그 연결의 통사적 장치는 비교적 쉽게 찾아진다. '-게'는 부사적인 성분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사적인 성분이 서술어에 연결되는 관계는 통사적인 연결 장치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마련' 앞에 '-기' 구성이 나타나는 경우,[13] 그 성격은 다소 애매해진다. 이를 관형 구성이라고 보는 데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 '마련' 앞에는 지시사 '이, 그, 저'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마련, 그런 마련'과 같은 구성은 가능하다. 어느 한 가지 구성의 성

[12] '이, 그, 저'는 대명사로 쓰이는 일이 있으나 '요, 고, 조'는 대명사로 쓰이는 일이 없다. 가령, '이는 우리가 소홀했던 탓이다, 저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짓이다, 그는 참 다행한 일이다' 등은 잘 성립하나, '*요는 우리가 소홀했던 탓이다' 등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관형사로서는 '고것 참, 요것 참' 등과 같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러한 성질은 검증에 매우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13] 이러한 논의는 '-게 마련이다'라고 할 때의 '-게' 구성은 '마련이다'란 전체 서술어에 대한 부사적 성분으로 해석하고, '-기 마련이다'라고 할 때에는 '-기' 구성이 '마련'에만 관련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2c)의 괄호 표시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십상'에 대하여 '-기'는 성립하나, '-게'는 '*-게 십상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십상'은 '마련'과 달리 '-기'가 아니라, '-기에'를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조사 '에'가 잘 쓰이지 않을 뿐이다.

립이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에는 어휘적인 의미의 동질성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 마련'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 데 대하여 '-기 마련'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치가 준비된 상태인' 데 대하여 전자는 '물건이 준비된 상태'를 뜻하므로, 두 의미는 동질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충분한 것이냐 하는 데에는 역시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12d)의 '십상'에 대해서는 '*이 십상, *저 십상'도 성립하지 않고, '*이런 십상, *저런 십상'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기 십상'과 같은 구성은 본래 '-기에 십상'이었다고 가정해 보는 방법이 가능하다. 앞에 관형성분이 놓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반영이다. 반면, (12e)의 '때문'에 대해서는 '-기' 뒤에 그 통사적인 연결 방법을 명시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없으나, '때문' 앞에 '이 때문, 그 때문'이나 '이런 때문' 등과 같이 관형 요소가 올 수 있다. 이는 그 구성이 통사적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5c)에서 말하는 '통사적 연결 장치'를 가진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13) 문제의 요소 앞에 문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형태소들이 나타나 두 성분 사이의 연결 관계가 명시되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외현적으로는 아무런 형식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관계를 명시하는 형태소들의 삽입이 잠재적으로라도 가능한 경우, 또는 문제의 요소가 가지는 의미 기능적 측면을 크게 손상시킴이 없이 다른 구성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구성의 경우는 '통사적 연결 장치'를 가진 것으로 본다.

(13)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12)의 예들에 대하여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6b)의 예들에 적용해 보면 그 결과는 아래의 (14)와 같다. 몇 가지 예들에 관형사적 용법만을 보이는 지시사 '요, 고, 조'와 '이런, 저런'만을 문제의 요소 앞에 놓아 보기로 한다.

(14) a. *요 끼리, *조 끼리, *이런 끼리, *저런 끼리
b. *요 들, *조 들, *이런 들, *저런 들[들은 복수 표지임]
c. *요 씩, *조 씩, *이런 씩, *저런 씩
e. *요 째, *조 째, *이런 째, *저런 째

(14)는 어느 하나의 예도 성립하지 않으며, 성립할 가능성조차 없다. 따라서, (14)의 '끼리, 들, 씩, 째' 등은 적어도 (12)의 예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이들과 그 선행 요소 사이에

는 (13)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는 명백히 논리적인 결함이 개재한다.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요소가 '통사적 연결 장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 논리상 통사적 구성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어-서술어의 관계나 목적어-서술어의 관계 혹은 기타의 통사적 성분과 그와 관련을 맺는 성분과의 관계를 통사적 관계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13)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통사적' 파생 관계를 맺는 의존 요소와 선행 성분과의 관계를 '무표적인 보어 관계'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의미론적인 의존성을 강하게 가지는 어떤 요소가 그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을 '보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며, 다른 유표적인 형식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표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5) (13)에 대한 보충
통사적 파생을 유도하는 요소와 그에 선행하는 통사적 성분 사이에는 비록 (13)에 규정된 바와 같은 '통사적 연결 장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무표적 보어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하자.

(16) a. 그는 [[우리가 믿는 정치인]답]다.
b. 오늘은 [[[비가 올]듯]하]다.
c. 오늘은 [[[비가 올]성]싶]다.
d. 오늘은 [[[그가 옴]직]하]다.
e. 오늘은 [[[그가 옴]직]스럽]다.

(16a)의 '-답-'은 김창섭(198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바로 '정치인'뒤에만 연결된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정치인'이라는 구적인 범주 뒤에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5b)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또한 '-답-'은 어휘적 요소라기보다는 문법적 요소라는 점에서 (5a)을 충족시키며, '-답-' 앞에는 전혀 아무런 '통사적 연결 장치'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c)와 (13) 및 (15)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특징은 (16b, d)의 '-하-'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듯하다, 직하다' 등을 '보조 동사'로 취급하기도 하고, 때로 조동사라는 술어를 쓰는 사람도 있으며, 서정수(1975)에서는 "형식 동사"의 역할을 하는 '-하-'도 설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보조 동사'라고 할 때에는 '-어 보다, -게 하다, -게 되다, -고 말다'와 같

은 전형적 '보조 동사' 구성에 나타나는, 국어의 일반적 통사 구성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 되고,[14] 만약, '-하-'를 "형식 동사"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우리 조건의 (5a)만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 다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또, 논리적으로도 내용이 없는 '순수한 형식의 용언'이라는 기형을 낳게 된다. 적어도 그것은 (16c)의 '-싶-'과는 다른 용언이라는 의미에서 전혀 "형식만의 동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를 '통사적 파생'에 참여하는 용언 요소라고 하면, 그 특이성의 대부분이 포착될 수 있다. (16c)의 '-싶-'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싶-'이 보문 동사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의 하나이다. 다만, (16c)의 '-싶-'은 '-고 싶-'과 같은 완전한 통사적인 구성에 쓰인 것이 아니라, 파생적인 성격을 가지는 통사적인 구성에 쓰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6d)의 '-음#직하다'는 '-음직#하다'와 같이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16e)와 같이 '-하-'의 자리에 '-스럽-'이 쓰일 수 있음이 주목된 일은 드물다. 이는 (16d)에서 '-하-'의 자리가 완전히 통사적인 자격을 가지는 위치가 아님을 의미한다. 비록, 그 자리에 '-스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사적 파생'의 원리에 의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된다. 그것은 통사적 파생이라는 그 정의적 속성 자체에 충실한 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련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하다' 구성이다. 관련 예들과 함께 보기로 한다.

(17) a.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오거나 한다.
b. 멜로디가 나쁘든지 가사가 나쁘든지 하다.
(18) a. 그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
b. 자동차가 "빵빵"한다.
c. 옷이 훼덩그렁하다.
(19) a. 그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b. 방 안에 사람이 있기는 하다.
(20) a. 그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
b. 동생들이 떠나려 한다.

---

[14] 이는 가령 '울 듯하다'와 같은 경우, '울'이라는 동사의 관형사형이 '듯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수식하게 된다는 통사 구성의 이상성을 지적한 것이다. '척하다, 법하다, 체하다, 듯싶다, 성싶다, 뻔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구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졸고(1985b)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 동안 잘 지적되지 못했던 것은 '만하다'이다. 관형사형 뒤에 오는 것과 명사 뒤에 오는 것을 구별하여 전자를 보조 형용사로, 후자를 접미사로 또는 조사로 취급하는 일도 있으나, '이만한 물건'이라고 하는 예의 '만한'에 대해서는 접미사나 조사가 "활용"을 한다는 기술을 해야 하는 결함이 있다.

c. 그는 학교에 갈까 말까 한다.
d.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17)에서는 선행 문장 전체를 받고 있는 '-하-'가 문제이다. 이들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의 '-하-'가 전혀 독립적 어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정수(1975)에 의하면, 이들은 다시 "형식 동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시하려는 것은 예의 '-하-'가 동사나 형용사의 어느 한 범주로 고정되지 않고 선행 요소나 성분의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어휘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특성은 통사적 파생이 가지는 (5a)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품사가 선행 요소의 의미론적인 성격[이에는 화용론적인 고려도 포함된다]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은 (18a~c)의 예들과 유사하다 [남기심(1973) 참조]. 선행 요소가 행동성을 갖춘 것이면 동사가 되고 상태성을 갖춘 것이면 형용사가 된다. 이에 대해서(20a~c)는 '-하-'가 독자적으로 품사적 자격을 가지는 예이다. 선행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d)도 통사적 파생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는 독자적으로 일정한 통사적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는 (17a, b)와 같은 예의 '-하-'와 선행 요소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현상과 대조를 이룬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a.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오거나 그들은 한다.

(19a)는 이른바 장형 부정의 예이며, (19b)는 동사구[또는 문장이나 용언]의 주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의 '-하-'도 그 통사적 범주가 선행 용언의 형태·통사·의미적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17)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이제 우리는 이들 구성도 통사적 파생의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이들도 (5a, b)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송석중(1971)에서는 장형 부정의 '-지'와 (19b)의 '-기'를 동일시하였으나, 이는 통사적 구성 자체가 다른 것이며, 그 품사적 자격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구성에서나 '-하-'의 성격에 의한 것이다. (19a, b)에서 '-하-'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라는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통사적 범주가 선행 구성에 의존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상의 해명에도 도움이 된다.

(21) a. *살기는 거북이가 가장 오래 한다. [최현숙(1988) 참조]
b. 살기는 거북이가 가장 오래 산다.
(22) a. 철수는 사람을 때리기조차 한다.
b. ?*철수는 사람을 때리기조차 때린다.

c. 철수는 사람을 때리기는 때린다.
d. *철수는 사람을 때리기도 때린다.

'-하-'를 대동사라고만 한다면, (21b)와 달리 (21a)가 그 성립에 이상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고, (22b)와 달리 (22a)가 성립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하-' 구성과 다른 본동사 구성은 본래 그 구성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면, 다른 문제가 없어진다. (21a)는 통사적 파생 구성이므로, 선행 요소와 '-하-' 사이에 조사 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못함을 보인다. 일단 (21), (22)와 같은 예의 '-하-'를 대동사가 아니라고 할 때, (22a), (22c)와 (22b), (22d)의 관계는 본동사를 대동사로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통사적 파생의 '-하-'를 관련 동사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는'과 같이 의미 내용이 비교적 작은 조사가 있을 때에는 관련 동사로의 해석이 가능하나, '도, 조차' 등과 같이 의미 내용이 큰 조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해석이 제약된다는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제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들'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15]

(23) a. [그들은 밥을들 많이들 먹었다]들. [김영희(1976) 참조]
b. 나는 [[[성장기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준 사람]들]을] 잊지 못 한다.
c. [[그 때 나를 보살펴 준] [사람들]]이 고맙다.
d. 그들은 [매우 열심히]들 일한다.
e. 책상 위에는 [[책, 연필, 지우개]들]이 있다.

(23a)의 밑줄 친 '들'은 그들 바로 앞에 오는 성분의 복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개별적 복수성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전혀 형태적 파생의 범주에는 들 수 없는 예이다. 이들은 형태적 파생이 가지는 (3c)와 같은 조건을 어긴다. 이 '들'은 당연히 통사적 파생의 범주에 든다. 그러나, 선행 성분 외의 다른 성분의 복수성과 관련되는 '들'만이 통사적 파생의 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 파악이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는 하나, (23b)의 '들'도 통사적 파생일 가능성이 있다. '들'

[15] '들'이 바로 선행하는 성분의 복수가 아니라, 주어의 복수 표현과 관련될 수 있음이 지적된 것은 Ridel(1881)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이 문제에 주목한 논의는 여럿이나 최현숙(9185, 1988)에서 '들'을 국어의 AGR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들'이 반드시 주어와만 연관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돈들이 아쉽다'와 같은 예의 '돈들'은 주제와 관련되는 것이다. 최현숙(1985, 1988)에서 다시 AGR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도 반드시 주어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AGR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1985a)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말을 해 준 사람'의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적인 개체 집합적 복수 개념이 통사적인 관련 사항인지 화용론인 관련사항인지는 명백치 않다. (23c)와 같이 동시적 개체 집합적인 복수 대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23c)와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개체성의 의미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23c)에 대해서도 (23b)와 같은 구조의 상정이 가능하다. (23d)는 '들'이 '매우 열심히'라는 부사구에 연결되는 경우이다. 물론, '매우들, 열심히들'과 같이 그들 각각에도 연결될 수 있다. (23e)는 나열되는 성분 뒤에 놓이는 '들'의 예를 보인 것이다. '들'은 앞에 나열된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학교 문법에서는 (23e)의 '들'을 의존 명사의 하나로 취급하나, '통사적 연결 장치'가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존 명사와는 다르며, 선행 성분이 보다 큰 통사적 구성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 단위 의존 명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은 의존 명사라기보다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이다.

위에서는 '들'의 쓰임 중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되는 '들'을 분리해 내는 데에만 힘을 모았다. 그러나, '들'의 두 가지 의미는 해석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많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이다.

(24) a. 책상 위에 두 책이 있다.
b. *책상 위에 두 책들이 있다. ['책'이 두 권밖에 없는 경우]
c.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국어의 경우, (24c)의 'two books'와 정확하게 대응하는 (24b)의 '두 책들'과 같은 구성이 성립하지 않음이 지적된 것은 비교적 오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된 일이 없는 듯하다. 영어의 예와 국어의 예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차이로 나타내 보기로 한다.[16]

(25) a. *[NP[ADN 두][N 책들]]
b. [[NP[ADN 두][N 책]][SS 들]]
c. [NP[QP two][N books]]

(25a)는 '두 책들'을 (25c)와 동일한 구조로 상정하여 본 것이다. (25a)가 (25c)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일이 없다는 의미에서 국어에서 (25a)와 같은 구조는 상정될 수 없다. 만약, 국어에 형태적 파생의 접미사로서의 '들'이 존재한다면, (25a)에서 [N 책들]과 같은 구성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5a)는 성립하지 못한다. 이는 문제의 '들'이 명사가 아니라 명사

[16] (25)에서 ADN(=ADNominal Phrase)는 관형사구를, SS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를, QP는 양화사구를 표시한 것이다.

구 뒤에 연결되는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이다. 다른 어려움이 없다. 반면, 영어에 있어 (25c)와 같은 구성이 성립한다는 것은, (25c)가 통사적인 현상이 아니라 형태적인 현상임을 뜻한다. 통사적 성분 사이의 호응은 또 다른 현상이다. 국어에서 성립할 수 있는 구성은 (25b)와 같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책'들의 복수를 뜻하는 구성이다. 다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보기로 한다.

(26) a. ??*[[[한 해 동안 나를 보살펴 준][사람들]]들]이 고맙다.
b. ??*[[저 사람들]들] 좀 봐!

만약, 국어에 형태적 파생의 '들'과 통사적 파생의 '들'이 있어 그 존재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26a, b)에서와 같이 형태적 파생의 '들' 뒤에 다시 통사적 파생의 '들'이 연결되는 구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6a, b)는 아주 이상하다. 이는 적어도 형태적 파생의 '들'과 통사적 파생의 '들'이 중첩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이 이유를 우리는 그 기능상의 동질성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 문법에서 혹 편의상 '들'을 형태적 파생의 접미사로 취급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예들은 형태적 접미사로 다루는 것이 보다 편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17] '들'은 단지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로서의 자격만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이는 '들'은 N이 아니라, NP뒤에만 연결됨을 의미한다. 가령, (26a)의 '사람들'이 선행 관계절에 의하여 수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명사 구성이 아니라, 명사구 구성으로 관계절을 가짐을 뜻한다. 그 구조를 간략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SS는 통사적 접미사를 나타낸 것이다.

(27) $[_{S'}[_{S}[_{NP}\ e_i]$ … 보살펴 주-$][_{COMP}$-ㄴ$]][_{NP}[_{NP}[_{N}$ 사람$_i]]\ [_{SS}$들$]]$

(25a)와 같은 구성의 불가능성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어떤 구성 안의 복수성은 (25b)와 같이 그 구성 밖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5a)에서 가령 [두 책]의 복수성은 명사구의 내적인 구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사구 밖에 '들'로써 나타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위절의 복수성이 상위절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동궤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

[17] 이는 가령, '그들, 이들, 저들'과 같은 예는 통사적인 구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보는 것이 문법 기술에 있어서는 더 편리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형태론적인 파생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편의상의 조처에 지나지 않는다.

(28) a. ?*나는 [[아이들이 편안히 놀]게]들 하였다.
b. *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들 생각하였다.

자명한 일이지만, (28a, b)가 결함을 가지는 것은 하위절 주어의 복수성을 그 절 경계 바깥에 반영한 데 있다. 이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3a)의 문장 끝에 있는 '들'이다. (28b)와 같은 예가 성립하는 일은 없으므로, (23a)가 액면 그대로 성립한다면, 그것은 예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29) a. [그 사람이 좋아]들?
b. [돈이 있어]들?
c.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들?
(29′) a. [당신들은 그 사람이 좋아]들?
b. [당신들은 돈이 있어]들?
c. [당신들은 그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들?
(30) a. ?*우리들은 그 사람이 좋아들.
b. ?*우리들은 돈이 있어들.
c. ??[야만인들이 음악을 좋아할까]들?

(29a~c)는 문장 밖에 '들'이 있다고 해도 비교적 잘 성립한다. '들'은 분명히 주어의 복수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29a~c)를 (29′a~c)와 같이 바꾸어 보면, '들'은 문장 속의 '당신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평면적인 관련이 아니다. (30a, b)와 같이 '들'에 선행하는 것이 평서문일 경우, 그 성립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화의 출발에 (30a~c)가 쓰이는 것은 극히 제약된다. 청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을 화자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30c)도 의문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는 '들' 관련 대상이 직접 발화 장면 속에 있을 때, 문장 경계 밖에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말해 준다. 그것은 관련 대상의 의식을 개별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미론적으로는 그러한 관련이 상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는 통사적인 기저에 그러한 문장이 설정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문장 안의 어떤 성분이 가지는 복수성이 문장 밖에 아무런 전제도 없이 불규칙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3a)의 문장 끝에 있는 '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인들은 음악을 좋아한다들'이라는 예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는 그 의

식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구성 내부의 복수성이 그 경계 바깥에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상위 구성의 복수성이 다른 주체와 관련되는 하위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조건은 보다 확대될 수 있다.

(31) 복수성의 상위 침투 금지 제약
어떤 통사적 구성 내부에서 성립하는 복수성은 그 구성의 경계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32) a. 학생들은 모두들 집으로 갔다.
b. 학생들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c. *학생들은 모두들이/모두가들 집으로 돌아갔다.
d. *학생들 모두들이/모두가들 집으로 돌아갔다.
(33) a. 학생들은 셋이 그 일을 하였다.
b. *학생들은 셋들이 그 일을 하였다.
c. *학생들 셋들이 그 일을 하였다.
(34) a. *[[학생들 셋]들]
b. *[$_{TOP}$학생들은][$_{S}$[$_{NP}$[e_i 셋]들]이…]
c. *[$_{TOP}$학생들은][$_{S}$[$_{NP}$[e_i 모두]들]이…]

(32c)는 박금자(1985)에서 그 현상의 특이성이 지적된 예이다. (32a)와 (32b)는 아무런 이상을 가지지 않는데, (32a)의 '모두들'과 (32b)의 '모두가'를 복합시켜 놓은 것과 같은 (32c)의 예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32)에서 주목되는 것은 '모두'가 양화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며, 그런 한에 있어 그 구성의 특이성은 (33)의 예들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2b)는 (33a)와, (32c)는 (33b)와, (32d)는 (33c)와 그 구성적 특징이 같고, 문법성 판단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모두'는 (32a)에서와 같이 부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 대하여, (33)의 '셋'은 그러한 용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33c)의 '학생들 셋들'과 같은 구조를 (34a)와 같이 나타내 보기로 하자. (34a)가 부적격하게 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31)의 제약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32c)와 (33b)의 文頭 '학생들은'이란 표현은 '모두들이/모두가들'이나 '셋들이'와 같은 구성 속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양화적 요소와 관련되는 양상은 (34b)(34c)와 같이 나타내 본다면, 그 의미론적인 관련이 (32a)와 다른 것이 아님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도 (31)의 조건을 어기는 것이다.

(34a)와 같은 구조의 부적격성은 궁극적으로 '들'이 형태적 파생에 관여하는 요소가 아니라, 통사적 파생에 관여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만약, (34a)의 구성 밖에 있는 '들'이 구성 전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직접 선행하는 수사 '셋'에 대하여 작용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구성이 부적격하게 될 이유가 없다.[18]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국어의 조사와 어미에 관한 문제이다. 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형태론적인 파생의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못 된다. 이를 목용이나 굴절의 접미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19] 그러나, "선행 체언"에 조사가 연결되는 것, 또는 "선행 동사"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나 어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인가? 우리는 이러한 관계도 통사적 파생의 하나를 이루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조사나 어미가 체언이나 동사에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한다.

(35) a. *[[어제 온][사람에게]]
b. [[어제 온 사람]에게]

(36) a. Wo wohnt seine Tante?
b. [[seine]$_{[+nom\ case]}$ [Tante] $_{[+nom\ case]}$]

(37) a. [s'[s 어제 오-][COMP-ㄴ][NP 사람]]
b. [s'[s 철수가 오-][COMP-고]][s[s영희가 오-][SS-았-]][COMP-다][20]
c. [s'[s 철수가 오-][COMP-다가]][s[s영희가 오-][SS-았-]][COMP-다]
d. [s'[s[s 철수가 오-][SS-았-]][COMP-다가]][s[s영희가 오-][SS-았-]][COMP -다]

조사가 "체언"에 연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술 방식이기는 하나, 보다

---

[18] 여기서 우리는 주어나 주제와 관련되는 '들'이 문장의 어떠한 성분 뒤에 복사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24)나 그 확대 제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다. (i) '들'은 주어나 주제의 직접 지휘(command) 영역 안에 있는 성분 뒤에만 복사될 수 있다[여기서 '직접 지휘 영역'이란 (24)의 제약을 지키는 영역을 말한다]. (ii) '들'은 문법적인 형태소 사이에는 복사될 수 없다. (iii) '들'은 다른 명사구의 관형 성분에는 복사될 수 없다.

[19] 이는 Ramstedt(1939)나 이기문(1961) 및 안병희(1961) 등에서 suffix 또는 "격접미사" 또는 "주체 겸양법의 접미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염두에 두 것이다.

[20] 졸저(1987a)에서는 문장 구성에 선어말 어미가 연결된 것을 S'로 상정하였으나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정밀하게 말한다면, 조사가 연결되는 것은 명사구이다. (35a)와 같은 구성은 국어에서는 절대로 성립하는 일이 없다. 이는 가령 (36)의 독일어에서 주어 seine Tante에 격이 통사적으로 배당된다면, 그 격이 그 구성의 주요 성분에 삼투될 수 있고, 또 삼투되어야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현상이다. (36b)는 (36a)의 각 성분에 상위 성분의 격 자질이 삼투됨을 보인 것이다. 격 자질이 단지 표제(head)에만 삼투되는 것만이 아닌 것이 특이하다. 형용사가 격에 따른 굴절을 보이지 않는 영어에 있어서는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에 격 자질이 삼투될 필요가 없을 따름이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무위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명사구의 수식 성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격이 그 표제 성분에 삼투되는 일도 없다.

(37a, b)에서도 우리는 국어의 선어말 어미가 단지 동사에 어간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이루는 선행 문장 전체에 걸리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관계절이나 기타 보문 구성 또는 접속 구성 등에 일정한 서법 어미를 상정한 뒤에 다시 그것을 삭제하고 관형사형 어미를 삽입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게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익섭 외 (198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이론 내적인 이점 외에도, (37b)에 있어서는 통사적 접미사로서의 '-았-'을 상정할 경우에는 '-았-'이 선행 접속문에 잠재해 있다거나 삼투된다거나 선행 접속문의 '-았-'이 이동했다거나 하는 등등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았-'은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그 의미론적 작용을 미치는 것이며,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과의 사이에는 접속 어미 또는 보문자[여기서는 보문자로 설정하였다]의 의미기능이나 화용론적 고려에 따라 두 사건의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37c, d)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37c)는 선행 사건이 완료된 상태일 수도 있고 완료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는 데 대하여, (37d)에서는 그것이 완료된 상태로만 해석된다. 어느 예에서나 후행절에 들어 있는 시제 형태가 선행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 얻어질 것이다. 용언의 경우, 선어말 어미를 통사적 파생으로 설정한다면 이른바 "활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 어미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설정할 경우는 '-았다, -다, -았으나, -았으니' 등이 연결되는 것을 모두 "활용"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단 '-았-'을 통사적 파생 접미사라고 할 때, 우선 "활용"에는 어말 어미만을 관련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국어에서의 "활

용"은 편의상의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 기본적으로 "활용"은 형태론적인 개념이지 통사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은 그 자체로서 (5b)의 통사적 파생에 관한 정의적 속성을 만족시킨다. 조사나 선어말 어미는 단어적인 요소에 연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에 연결되는 것이다. (5a)의 성격 자체는, 조사나 선어말 어미가 실질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진 어휘적 요소가 아니므로, 그 성격은 자명하다.

다시 다음의 예들을 보기로 하자.

(38) a. 철수로부터 온 편지
b.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철수부터로 하였다.
c. 철수에게서부터 (편지가 왔다)
d. 철수부터에게 (물어 보았다)

(39) a. ?나는 어제 그 일을 하느라고 죽겠었다/*죽었겠다.
b.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오니/말씀하오시니/??말씀하시옵시오시니
c. ᄒᆞ더시니>ᄒᆞ시더니
d. ᄒᆞᄉᆞᄇᆞ시니>하시ᄉᆞᄇᆞ니

(38a~d)는, 조사의 연결 순서에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연결에 절대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인다. 이는 조사의 연결이 통사적 구성의 성격을 가짐을 의미한다. (38a)와 (38b)의 밑줄 친 부분의 구성적 의미가 다른 것은, 조사가 동일 체언에 평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2차적인 조사는 제1차적인 조사 구성 전체에 대하여 그 의미가 작용되게 됨을 의미한다. 동일한 특성이 선어말 어미 구성에 대해서도 찾아질 수 있다. (39a)에서 '죽겠었다'는 다소 그 성립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일 문맥에서 '죽었겠다'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39b)에서와 같은 선어말 어미 구성도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39c, d)와 같은 변화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국어의 선어말 어미의 연결 순서가 절대적으로 고정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선어말 어미의 순서가 바뀌는 것과 같은 역사적인 변천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선어말 어미의 연결에도 순서에 관한 어떤 경향은 있는 것이지만, 절대적인 순서라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절대적인 순서가 있다면, 역사적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요소들이 고정적인 순서를 가지지 않는 구성을 형태론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21]

[21] 이와 같은 현상 및 뒤에서 다루어지는 어미의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988년 2월 12일 한국언어학회 겨울 연구회의 토론회에서 "국어의 활용에 대한 통사적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바 있다.

어미의 성격에 관하여 위에서는 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만 주의를 보았다. 어말 어미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들도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 외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서법 어미나 보문 어미 또는 접속 어미 등 어느 것이든 선행 문장 전체의 구성이나 의미에 대하여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은 어말 어미를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통사적인 파생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상정하여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논리적으로는 선어말 어미가 이루는 구성을 위에서와 같이 이미 통사적인 것으로 파악할 때,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 뒤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이미 통사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행 형태가 이미 선행 문장 전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 뒤에 오는 형태가 선행 문장의 용언에 대해서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다른 근거의 하나는 어말 어미라고 하여 문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말 어미 뒤에는 다시 다른 요소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40) a. 철수가 노래를 부른단다.
b. 철수가 옵니다요.
c. 오늘은 집에 있잣구나.
d. 그 사람이 온다며?
e. 그 사람이 이런 곳엘 오다니!

(40a)의 '-ㄴ다' (40b)의 '-요' (40c)의 '-구나' (40d)의 '-며' (40e)의 '-니' 등은 문장이 끝난 뒤에 다시 연결된 형식이라는 의미에서 "초문미" 또는 "문미 외적인 문미"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졸고(1981) 참조. 권재일(1983)에서는 '강조법'이다]. 단, 동사 '하-'의 생략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예들은 제외된다. "초문미"는 일단 문장이 끝난 뒤에 연결된 형식들이므로, 형태론적인 파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적어도 문장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통사적인 구성 뒤에 연결된 것이며, 이로써 통사적 파생의 정의적 속성(5b)를 만족시킨다. 다른 의미에서 만약, 예의 '-구나, -니, -며' 등과 같은 어말 어미 형식이 본질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형태론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40c, d, e)와 같은 구성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어말 어미들은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과 의의

'파생'이란 본질적으로 형태론적인 개념이나, 국어에는 분명 형태론적인 파생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접미사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형태적

파생이라는 것을 접사적인 요소가 형태소나 단어에 연결되어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의 접미사는 통사적 구성 뒤에 연결되는 것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을 우리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 관련 접미사적인 요소들을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형태론적인 접미사들은 "어휘 고도 제약"에 지배를 받는 반면,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들은 "어휘 고도 제약"을 어기는 일이 있음은 그 구성이 형태론적인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그 가장 전형적인 예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궁극에는 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이루는 구성이 통사적인 파생 구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국어를 언어 유형론적인 분류상 "교착어"에 속한다고 할 때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들의 경계가 명확하며 그 형식 자체가 고정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해 왔으나, 본 논의를 통하여 도달한 보다 본질적인 특징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어휘적인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굴절어"는 통사적 파생의 존재는 드물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형태론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본고는 언어 유형론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형태론적 파생에 있어서 교착어나 굴절어나 고립어가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언어 유형론에 대해서는 Jespersen(1964), Comrie(1981), Mallinson and Blake(1981) 등이 참조된다].

둘째, Chomsky(1981, 1986a, b)등에서 엑스-바 이론은 언어의 보편 문법(UG)속에 들어 있으나, 언어 유형상 교착어에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구성이 지배적인 문법 구조의 하나가 되는 한에 있어, 교착어는 엑스-바 이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구조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이러한 구조의 하나가 제시된 것은 Hale and Platero (1986)이다].

(41) a. [? [NP...][SS...]]
b. [? [S...][SS...]]

(41a)는 명사구 뒤에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SS)가 오는 예를 보인 것이며, (41b)는 문장 뒤에 통사적 파생의 접미사가 오는 예를 보인 것이다. 엑스-바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구성의 상위 범주 ?는 표제보다 바-하나가 더 많은 구성이 된다 이러한 논리를 (41a, b)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41a)의 ? 범주

는 SS′가 될 것이며, (41b)의 ? 범주도 SS′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접미사 가운데는 선행 어기의 통사적 범주를 바꾸는 것도 있고 바꾸지 않는 것도 있다. 따라서, 통사적 범주를 전혀 바꾸지 않는 접미사 구성에 대하여 그 상위의 범주를 선행 구성과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국어의 조사 구성을 때로 PP(Postpositional Phrase)와 같이 설정하는 일이 있으나, 이러한 범주의 설정도 위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조사가 선행 명사구의 범주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범주가 상위 범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PP 범주의 상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조사 구성이라고 하여 DP(Delimiter Phrase)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조사는 선행 명사구의 범주적 성격을 변화시킴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졸저(1987)에서 다룬 바 있으나 내용에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

넷째, 국어의 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형태론적인 어형 변화의 범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게 된다. 명사구에 격조사가 연결되는 것도 통사적 파생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어의 격조사는 엄격하게 인구어적인 의미의 격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에서의 격 범주의 설정은 어떤 요소의 분포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법 기술의 편의상의 문제로 환원된다. '보다'나 '처럼'를 비교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데에서는 해답이 올 수 없다.

다섯째, 선어말 어미도 통사적 파생에 관여하고 어말 어미도 통사적 파생에 관여하는 것이라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통사적 구조의 유형은 동일하나, 그 기능상의 차이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말 어미를, 그냥 어말 어미대로 설정하느냐 보문자로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분류의 기준이 형태론적인 것인가 통사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가 본 바로는 어말 어미는 통사적 구성을 이루는 것이므로, "어말 어미"란 개념은 편의상의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 통사론에서는 문장 어미란 명명이 더 적합하다. "보문자"는 통사적인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영근 (1972a)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Ⅰ): 확립 기준을 중심으로,' 논문집 : 인문·사회계 18, 서울대학교.

_____ (1972b)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Ⅱ): 통합 관계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8, 고려대학교.

_____ (1973a)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연구(Ⅲ) : 파생적 접미법의 기술 방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8, 고려대학교.
_____ (1973b)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Ⅳ) : 동요 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 12, 대한민국 학술원.
_____ (1974) 국어 접미사의 연구, 백합출판사.
권재일 (1983) '현대 국어의 강조법 연구,' 대구어문논총 1.
김계곤 (1969a) '현대 국어의 뒷가지 처리에 대한 관견,' 한글 144, 한글학회.
_____ (1969b) '현대 국어 조어법 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인천 교육대학 논문집 4.
_____ (197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한글 157.
김영희 (1976) '복수표지 "들"의 문법,'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김창섭 (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남기심 (1973) 국어의 완형 보문법 연구, 계명대 한국학 연구소.
노대규 (1981)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 연구,' 한글 172, 한글학회.
민현식 (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박금자 (1985) 국어의 양화사 연구, 국어연구 64, 국어연구회.
북한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1960) 조선어 문법 : 어음론·형태론[학우서방에서 1961년 번인].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1976)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송석중 (1971) 'A Note on Negation in Korean,' *Linguistics* 76.
송철의 (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 현상,' 국어연구 38.
_____ (1983)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12, 국어학회.
안병희 (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국어연구회, 안병희 (1978) 所收.
_____ (1961) '15세기 국어의 경어법 접미사 "님"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창간호, 건국대.
_____ (1963) '주체 겸양법의 접미사 "-ᄉᆞᆸ-"에 대하여,' 진단학보 21, 진단학회.
_____ (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양동휘 (1977) 'On Complementizers in Korean,'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유창돈 (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이기문 (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_____ (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남순 (1982) '단수화 복수,' 국어학 11, 국어학회.
이숭녕 (1961a) 국어 조어론고, 을유문화사.
_____ (1961b)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_____ (1981) 개정증보판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희승 (1955) 국어학개설, 서울 : 민중서관.
임홍빈 (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 : 2, 한국언어학회.
_____ (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_____ (1985a)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 국어학 14, 국어학회.
_____ (1985b)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 3, 서울대 어학연구소.
_____ (1987a)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_____ (1987b)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 출판부.
_____ (1959) 깁고고친 우리말본, 정음사.
최현숙 (1985) 'Remarks on Configurationality Parameters,' S. Kuno et al. eds. (1985)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Dep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_____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Hanshin Publishing.
하치근 (1987)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부산대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 논문.
허 웅 (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홍재성 (1985)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contemporai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Bloch, B. and G.L. Trager(1942) *Outline of Linguistic Analysis*, LSA.
Chomsky, N.(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_____ (1986a)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Publishers.
_____ (1986b) *Barriers*, The MIT Press.
Comrie, B.(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Basil Blackwell, Oxford.
Fabb, N.A.J. (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ertation, MIT.
Hale, K. and P. Platero (1986) 'Parts of Speech,' P. Muysken and H. von Riemsdijk eds. (1986) *Features and Projections*, Foris Publications.

Jespersen, O.(1964)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W.W. Norton and Company Inc.

Kato, Y.(1985) 'Negative Sentences in Japanese,' *Sophia Linguistic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 Sophia University.

Mallinson, G. and B.J. Blake(1981) *Language Typology: Cross-linguistic Studies in Syntax*,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Martin, S.E.(1954) *Korean Morphophonemics*, LSA.

Martin, S.E, Lee Yang Ha, and Lee Sung-Un(1968)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Minjungseogwan, Seoul.[고영근(1974) 참조]

Nida, E.A.(1949)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Ramstedt, G.J.(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Ridel F.(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전상범 역(1987)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ABSTRACT

On Syntactic Suffixation in Korean

Hong-pin Im

Obviously, suffixation is one of the morphological processes which makes lexical derivatives by attaching dependent forms to lexical bases. This means that morphological derivational suffixes should be attached to 'lexical' bases, and that the products of morphological derivation should be lexical units or other lexical bases. It is also self-evident that the semantic effects of morphological suffixes involve the semantic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exical bases. We accept these three conditions as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derivation.

In Korean, however, we come to recognize the presence of some peculier suffix-like dependent forms showing different behaviours from typical morphological suffixes. Among such dependent forms are *tul* (a plural marker which performs the semantic function of individuating a generic entity), *ssik* (a marker adding distributive meaning to a plural entity), *kkiri* (a

marker playing a semantic role of making a plural entity into some small inner closed circle), ***kkae*** (a marker denoting 'aroundness' after quantifying expressions), and a kind of *-tap-* (a derivative suffix which makes an adjective-like predication from NP and indicates that the subject has the quality of just described entity). These dependent forms especially verbal endings, prefinal endings, so-called case markers and delimiters, cannot be described as the ones participating in morphological processes. Firstly, they are not attached to lexical bases, but to syntactic constructions. Secondly, their products cannot rigidly be characterized as new lexical units or bases. Thirdly, their semantics sometimes does not operate on the immediately preceding elements, and sometimes the derivational results are not strictly independent words or lexical bases.

The procedure just described could be called 'syntactic derivation (SD).' SD explains many strange phenomena involved in Korean syntax and sheds some light on linguistic typology. Especially, it is pointed out that the case marker in Korean should remain as a case marker after an NP. The case feature of an NP never percolates into the head noun, contrasted with the Indo-European cases. This means that, in Korean, cases are not abstract cases, not like the ones postulated in the Chomskyan school. A syntactic function carrier in nature determines the syntactic function of a syntactic construction, just as a morphological suffix determines the category of morphological derivatives concerned. The same is true for verbal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in Korean syntax. In addition, since the category of a syntactic construction is to be determined by syntactic derivational suffixes, which does not imply that the only means of determining the syntactic category is SD, X-bar theory plainly fails at least in Korean syntax. In the light of SD, the position that views the category of NPs with some postpositions (case markers) in Korean as PPs (postpositional phrases) also is not tenable. It is simply because that what determines the syntactic category of a construction is the nature of syntactic derivational suffixes.

How many and what syntactic categories should be set up in Korean syntax is an empirical question, which is to be determined by the consideration of syntactic function of suffixes and of explanatory convenience of syntactic descriptions. This process cannot operate without taking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elements into consideration.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